

2008년 11월 3일 월 말씀

내가 잘 모른다고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청중으로 보니까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 만 명 청중 속에서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잘 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되고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물건도 다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돌도 세우고 그 어떤 것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듯 정신을 다해야 사람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웠어도 물러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 나와 주님입니다. 가운데 무엇이 끼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끼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항상 보면 지도자들이 뭘 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안 되면 선생의 이름을 막 대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 가다보면 아닌 걸 또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지도자는 행사 같은 것을 너무 중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모두가 다 신경을 씁니다. 풀 뽑으라고 하면 풀 뽑느라고 거기로 다 가버려 도둑놈이 다 도둑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신앙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것이 잘 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지도자들은 말씀에 중심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많이 배워야 합니다. 엄청나게 배워야 합니다. 나는 성경만 50년 동안 배워도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모르면 못 인도하니까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지식만 넣어주는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학문 세계로 가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성장 할 때는 무엇을 할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우선 커봐야 압니다. 나무도 커 보면 분재용인지 어떤 다른 용도인지 알게 됩니다. 목회하려면 단단히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때 어린이들 다루는 것을 하면서 목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목회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 하면 하나님이 갓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신앙을 잘 못 넣어주면 큰일 납니다.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일체 시켜줘야 합니다. 고목나무에 접붙이듯이 딱 접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못 하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하니까 사이비종교지도자가 생긴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중심하면 안 됩니다.

평대협 같은 단체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주의 주었으니 하지 마십시오. 임무도 안 줬습니다. 임무를 안 주었는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배워서 오늘 말씀대로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잘 하자고 몸부림치다가 생긴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서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하면 인본주의 사상 속에 신앙이 들어갑니다. 잘 배우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별떡거리며 뭘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타나지를 앓았습니까? 10년 동안 해외에서 하다가 또 한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을 심어주니까 계속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신앙나무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접붙이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우리와 하나 되라’ 왜 포도 옆에 안 열고 땅의 앗은뱅이에 접붙이냐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세계적으로 소문나서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다른 교회 안 가고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신앙을 다 살려주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모델이나 치어 이런 특수한 사람들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교회가 모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들을 잘 듣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발버둥쳐도 5%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영웅열사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보는 것과 가보는 것과 다릅니다.